

선교학적 관점에서 본 사도행전의 성령과 선교 연구: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A Missiological Study of The Holy Spirit and
Missions in Acts 1 and 2

김성욱 박사 (Kim, Sung-Uk)

총신대학교 교수 (선교학)



지난 세기 동안에 어떤 신학분야보다도 선교신학 분야는 세속주의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선교신학은 그 특성상 항상 변화하는 선교현장과 세상에서의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대한 적절한 복음 선교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한 세기 동안 선교신학은 세속주의 선교신학과 대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현대교회는 신학적 좌경화를 표방하는 급진적인 신학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학과 선교개념의 변질을 가져왔다. 이 후 사회위원의 신학이 등장하고 대전도(Larger Evangelism)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교회는 전통적인 영혼구원과 교회성장의 선교를 포기하였다. 세속화시대에 기독교 영성을 회복하는 일은 오늘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선교적 영성을 연구함은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선교적 활발한 사역은 현대교회의 중요

* 논문 접수일: 2008. 10. 9.

게재 확정일: 2009. 3. 7.

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톨랜드 알렌도 우리의 선교방법보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사실 초대교회의 활발한 선교사역의 근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의 오심은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복이자,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행 2:17-18; 율 2:28-29)로 이전 시대보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는 역사가 전개되면서, 초대교회 선교역사가 힘 있게 일어나게 만들었다.

오늘의 세속화시대에서 효과적인 선교적 영성을 위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선교사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선교적 영성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역을 통하여 이 시대의 세속화의 어두움을 극복하기를 기도한다(행 2:17-18):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주제어: 사도행전, 초대교회, 선교적 영성,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들의 선교

1. 서 론

2008년 가을 제52차 한국복음주의신학회가 학술세미나의 총 주제는 “세속주의와 기독교영성”인데, 신학의 어떤 영역보다 선교신학 분야에서 세속주의의 영향력은 참으로 컸다고 볼 수 있다. 선교신학은 그 특성상 항상 변화하는 선교현장과 세상에서의 다양한 문화현상들에 대한 적절한 복음 선교적 접근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지난 한 세기 동안 선교신학은 세속주의 선교신학과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¹

¹ Arthur Johnston,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Wheaton: Tyndale, 1978); Harvey T. Hoekstra,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Demise of Evangelism* (Wheaton: Tyndale, 1979);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김명희,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지난 19세기 말부터 오늘날까지 현대교회는 신학적 좌경화를 표방하는 급진적인 신학을 통해 결과적으로 신학과 선교개념의 변질을 가져왔다. 이후 사회구원의 신학이 등장하고 대전도(Larger Evangelism)의 개념이 소개되면서 교회는 전통적인 영혼구원과 교회성장의 선교를 포기하였다. 1938년 인도의 마드라스에서 열린 제3차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는 전통적인 영혼구원의 선교를 낡은 것으로 여기고 사회구원 선교로 방향을 선회하였다.²

특히 하버드 대학 교수 윌리엄 혹킹(William E. Hocking)은 『선교의 재고(再考)』(*Rethinking Mission*)에서 전통적인 선교신학을 부정하며 그러한 선교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듬해 미국교회 선교비를 절반으로 감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다. 혹킹에 의하면, 선교란 비기독교적 종교체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체제 안에 의를 실현시키고 있는 세력들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더 나아가 그는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에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종교 다원주의적 발언을 하였다. “중국의 유교는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인도의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일본의 신도는 신도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없다.”⁴ 그의 이러한 발언은 기독교의 전통적 선교개념을 전적으로 뒤집어 놓은 결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그의 선교신학이 실제 선교사역에 엄청난 선교의 축소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다.

1950년대에 와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제5차 빌링겐(Willingen) 국제선교협의회와 제6차 가나(Ghana) 국제선교협의회를 통해 소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를 주장하면서 “선교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선교시대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⁵ 전통적 영혼구원의 선교시대는 끝났다고 말

² WCC, *The World Missions of the Chu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Tambaram, Madras, India, December 12th to 29th, 1938), 128-30.

³ William E. Hocking,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59.

⁴ Hocking, *Re-Thinking Missions*, 59.

하면서, 곧 서구 교회가 비서구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타문화선교(Cross-Cultural)의 선교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선교 곧 개인 구원보다 사회구원 선교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J. C. Hockendijk는 “선교신학의 세속화”를 주장하면서 전통적 교회론 중심의 선교는 기독교의 근본진리의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선교론은 이 지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소위 평화(shalom)의 선교임을 주장하였다.⁶ 선교는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며 구조적인 악과 투쟁하며, 교회뿐만 아니라 세속단체와 타종교를 통해서도 수행된다고 주장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롬을 구현하는 행위로 주장하였다.⁷ 그의 선교개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으로 선포한 평화가 이미 도래하여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제란 이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평화를 표현하는 것이며, 봉사란 평화를 의미하는 겸손한 봉사임을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들은 타종교에 대한 무분별한 관용으로 몰고 가서 오늘의 상대주의적 신학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1960년대에 와서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의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사회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선교의 정의를 복음전파가 아니라 인간화로 선포하였다. 읍살라 제4차 WCC 총회에서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규정한다... 현재의 중요한 문제는 참 인간의 문제이다.”⁸라고 말했다.

제5차 WCC 총회는 1975년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주제로 모였는데, 거기서 남미 출신의 신학자 구스타보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의 해방신학(A Theology of Liberation)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⁵ Johnston, 84-89.

⁶ J. C. Hockendijk, “The Call to Evangelism,” *The Conciliar Evangelical 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64-1976*, ed., Donald McGavran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7), 50.

⁷ J. 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13-31.

⁸ WCC, *Drafts for Sections: Uppsala '68* Geneva: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1968), 34.

남미의 경제적 상황에 공산주의 이론을 응용한 해방신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쟁취하는 그 논리에 따라, 선교는 사회의 구조적인 악으로부터 해방을 강조하여, 해방을 위해 때론 폭력사용도 정당화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¹⁰ 여기서 나타난 나이로비의 선교관은 현대판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피압박자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신학을 해방의 신학으로, 그리고 선교를 사회정의의 위한 투쟁으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그 당시 세계교회 협의회 총무 스티븐 니일(Stephen Neill)은 “해방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만일 우리가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신하는 것이다.”¹¹라고 말했다.

특히 WCC 제7차 총회는 1991년 호주의 캔버라(Canberra)에서 열렸는데, “성령이여 오소서! 전 세계를 새롭게 하소서”(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World)라는 총주제로 한국의 여성신학자 정현경은 극단적으로 성령론을 주장하였는데, 곧 성령은 인성회복과 정의구현의 영으로서 억울한 영들의 신원을 위해 역사하며 분열되고 황폐한 인성과 생태계를 치료하고 연합시키는 역사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이미지는 대승불교의 관세음보살 사상에 잘 나타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² 이러한 에큐메니칼의 선교신학은 복음전파와 사회활동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교회의 주요 관심이 세계복음화보다 사회활동에 치우치게 만들었으며, 교회의 주된 선교가 인권운동이나 정치적 경제적 해방운동으로 치우치게 됨으로 성경적 개념의 선교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P. Clowney)는 이러한 세속화된 선교신학에 대해 “정치적 행동으로는 교회가 사회를 구원할 수 없다. 만일 복음전도가 정치화된다

⁹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History, Politics and Salvation* (Maryknoll: Orbis, 1973).

¹⁰ Philip Potter, “Christ’s Mission and Ours in Today’s World,” in *Bangkok Assembly 1973*, 55.

¹¹ Steven Neill,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89/3 (1975): 230.

¹² Chung Hyun-Kyung, “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Cre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Review*, vol. CXL, No. 6 (1991): 1076-87.

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The Church cannot redeem society by political action, when evangelism become politics; it is no longer the Gospel of Christ’s Kingdom).¹³라고 말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세속화 신학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성경적인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선교적 영성을 정립하기 위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선교를 살펴볼 것이다. 세속화시대에서 성경 중심적 선교신학은 절실한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선교는 현대교회 선교사역에 필요한 선교적 영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다고 본다.¹⁴ 성경에 나타난 구속사는 그 마지막 시대에 복음전파를 통하여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복음이 편만히 선포될 것을 보여준다(슥 4:6; 8:23).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임을 증거한다(슥 4:6). 예수님께서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에서 이 신약시대 마지막에 임하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강조하셨다(요 7:37-39; 행1:8). 현대 세속화시대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적 영성은 오늘 현대교회 선교사역의 모델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강림과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령을 통한 선교사역을 중심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적 영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¹³ Edmund P. Clowney, “A Critique of the ‘Political Gospel,’” *Christianity Today* 11 (28th April, 1967), 11.

¹⁴ Rol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93, reprinted); Harry Boer,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George Peters,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4); William J. Larkin Jr. and Joel F. Williams, eds., 『성경의 선교신학』, 김성욱, 홍용표 공역 (서울: 이레서원, 1998); Roger E. Hedlund,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박형용, 『사도행전: 교회확장의 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3);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7).

2.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행1장): 성령과 초대교회 선교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선교활동에 대한 교과서로서 선교사역의 모델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선교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행 1:8절에 나타난 대로, 행 1장에서 7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지방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으며, 7장의 스테반 집사의 순교이후에, 8장부터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의 흩어짐을 통해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음을 기록한다(행 8:4). 그리고 9장에서 이방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이라는 유대 청년의 변화를 기록하며 그의 선교적 역할을 통해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였다(행 9:15). 13장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로서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사역을 펼치게 되었으며,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소집되어 이방인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논의하며 초대교회는 그 선교적인 행정과 전략들을 논의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아 선교한 지역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 2차 선교여행을 수행하면서 유럽에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확장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3차 선교여행과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임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로마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유대지역(1장-7장), 그리고 사마리아(8장)와 땅 끝까지(28장)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다루고 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1장8절은 선교학적 연구의 핵심적인 구절로서 사도행전 전체의 선교구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여기서 주요 단어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는 일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주요한 몇 가지 선교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1. 사도들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초대 교회의 선교사역의 특징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선교사역을 잘 수행하도록 돌보시고 이끌어 가심을 묘사한다. 초대교회 선교사역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사도들의 선교활동은 그들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선교활동임을 분명하게 묘사한다. 그래서 화란의 선교학자 요하네스 바빙크(J. H. Bavinck)는 예루살렘 교회 선교사역에서 핵심적인 주인공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심을 주장하였다(The central theme of the Christian witness is Christ).¹⁵ 바빙크는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선교활동이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묘사된 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활동(The Activity of the Church)이지만, 이것은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여 선교하시는 그리스도의 활동(The Activity of Christ)임을 강조하였다.¹⁶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한 그리스도의 행전으로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다(행 2:33, 3:16; 4:10, 30; 9:15).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에 임한 오순절 성령 충만의 체험을 경험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기록한다(행 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¹⁵ J. Herbert Kane,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1976), 51.

¹⁶ J.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36: “It is first of all striking that the work of missions in the book of Acts is portrayed as the work of the glorified Christ. In this respect its name is actually improper: it should be called the Acts of Christ through his apostles rather than the Acts of the Apostles. For it repeatedly emphasizes that everything that is done by Christ.”

일으켜 세운 기적 또한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신 기적의 역사로 증거하고 있다(행 3: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특히 베드로는 그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인간적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다(행 3:12):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법정에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기적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임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행 4: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초기 사도행전의 선교사역은 이렇듯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 힘 있게 사역하였다(행 4: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의 시간을 통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을 때도 성경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의 도구임을 강조하면서,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이방선교사역을 수행하실 것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행 9:15).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사울청년에게 나타나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셨다(행 9:4-5):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의 현장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교회의 기초를 세워주셨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선교사역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다.

2.2.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주역들

사도행전의 선교의 주역은 초대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다. Herbert Kane은 사도행전의 선교역사에서 교회를 통한 선교활동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으로서, 선교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으로 초대교회 선교사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주장한다.¹⁷ 바빙크는 특별히 선교를 정의할 때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이유이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것이 교회의 활동이지만 실제로 선교는 그리스도의 활동으로서 교회를 통해 사역하심을 강조하였다.¹⁸ 바빙크는 선교는 교회의 소명이라고 말하면서 선교사역을 수행할만한 기구는 교회 그 자체이며,¹⁹ 교회 이외의 어떤 기구도 이러한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의 선교적인 본질을 강조하였다.²⁰

바빙크(J. H. Bavinck)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의 주역들을 “비공식적인 설교자들”(Informal preachers)로 강조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각각 받은 소명대로 복음을 전하였다고 강조한다(행 8:4; 11:19, 20; 16:3; 19:29; 20:4). 스테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많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였다(행 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초대교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였으며(행 8:5), 그의 선교사역에는 기적과 이적들이 함께 함으로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을 가져다주었다(행 8:8).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행 11:19-20).²¹

¹⁷ Kane, 51.

¹⁸ Johannes H. Bavinck,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ission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60), 62: “Missions is that activity of the church—in essence it is nothing else than an activity of Christ, exercised through the church—through which the church in this interim period, in which the end is postponed, calls the peoples of the earth to repentance and to faith in Christ, so that they may be made His disciples and through baptism be incorporated into the fellowship of those who await the coming of the kingdom.”

¹⁹ Bavinck, 58: “It is not without reason that we state that missions is the calling of the church.”

²⁰ Bavinck, 59.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공적인 선교사역의 특징은 모든 지역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사도와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전체가 선교사역에 참가하였다는 점이다(행 8:4). 교회 존재의 주요임무가 세계 선교로서 초대교회 평신도들의 뛰어난 선교활동을 보여준다. 최근에 WEC 선교회의 패트릭 존스톤(Patrick Johnstone)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큼니다.”라는 저서에서²² 선교하는 교회의 이 땅에서의 존재목적은 잘 드러내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후원하는 교회에 대하여 이 땅에서의 그 교회의 존재는 아름답다고 노래하였다(롬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2.3. 선교의 궁극적인 범위

선교학자 해롤드 쿡(Harold Cook)은 사람들이 선교에 소극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세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자기중심적인 자세를 지적하였다.²³ 현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사치라고 여기고, 외국보다 국내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는 선교에 소극적인 주장들은 이기적인 민족주의나 소위 자민족중심주의(Ethnocentrism)에서 나온 발상이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계를 향하여 열린 교회로 선교중심적인 교회였다(행 1:8; 8:4; 13:1-4).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은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등한 선교사역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1:8에 나타난 지명들에 대해 그 동안의 오해가 있어서 국내선교가 완성되면 그때 다른 나

²¹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행 11:19-20).

²² Patrick Johnston,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0).

²³ Harold R. Cook,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issions* (Chicago: Moody, 1954).

라어로 선교한다는 식의 성경 해석은 현대선교의 걸림돌이 되었다. “오늘은 한국, 내일은 세계”라는 문구가 벌써 세계선교의 발목을 잡는 표현인 셈이다. 행 1장에서 28장까지 펼쳐지는 초대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 끝까지 전개되는 모습을 위해, 선교사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여 거기서 복음 사역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행 28:14):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그래서 성경기자는 이것을 통해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행 28:28)라고 증거한다.

사도행전의 특이한 기록 가운데 하나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선교에 대한 그의 의식 변화의 기록인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교적 열심을 체험한 후에 그가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유대인의 통념상 이방인들과 상종치 않는 비선교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인간적인 관습으로 더럽다하지 말라는 강력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지리적인 선교적 확장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행 10:34-35; 행 11:17-18).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으며(행 9:15),²⁴ 그 후 바울은 안디옥교회에 의해 선교사로 파송 받아 사역하였다. 사도행전에 사용된 그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바울의 선교사로서 역할을 잘 보여준다. 그가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사역할 때의 이름은 바울로 기록되었으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도로 부름 받고 준비할 때까지 그의 이름은 사울을 사용하고 있다. 사도행전 9장에서 13장 초두까지 곧 그가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까지 그의 이름은 일관되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으며, 행 13장에서 안디옥교회의 선교사 파송식이 끝난 후에 그의 이름에 대한 기록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명칭으로 일관되게 기록

²⁴ “이 사람은 내가 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되어 행 28장 끝까지 기록되어 선교적인 목적을 보여준다(행 13:9-10):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꾀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사도행전의 선교적 확장에 대한 기록은 바울의 주치의로 사역한 누가에 의해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확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만큼 상세하게 사도 바울의 선교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행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러한 선교적 확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는 타문화에 대한 합당한 성경적 선교전략들을 세우기에 합의함으로써 초대교회는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자리 잡게 된다.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선교와 문화의 문제를 잘 해결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총회는 정치총회가 아니라, 땅 끝까지 선교를 위한 총회였다(행 15:28-29).²⁵

그 모임의 주제는 복음 전파시 할례 등 유대의 문화와 의식을 어느 정도 이방인 교회에 부과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회의의 결정은 성령과 더불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더 이상 유대인의 의식을 이방인에게 부과치 말고 다만 이방인의 부도덕을 금하라고 결정하였다(행 15:28-29).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복음이 파급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몸소 땅 끝까지 선교하였다(행 15:19; 15:24; 20:23; 26:10). 그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행 15:19),²⁶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골 1:6):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울러 초대교회의 복음 선교는 사회속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다. 행 8장의 사마리아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행 11:19),²⁷ 헬라

²⁵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행 15:28-29).

²⁶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행 15:19).

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롬 1:14):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니라”(갈 3:28)고 강조하였다. 초대교회 이단 중에 셀수스(Celsus)는 기독교를 비난 하면서 초대교회의 선교 현장이 다양한 계층들, 곧 무가치한 사람들, 바보들, 노예들, 가난한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다고 기록하였다.²⁸

2.4. 초대교회의 성공적인 선교적 형성²⁹

승천하시기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선교사가 되는 삶을 주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의 중요한 역할을 볼 수 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선교사역의 내용들을 보여준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더라면 놀라운 선교사역의 성공도 없었을 것이다.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었다. 행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강림의 한 특징으로 나타난 방언은 외국인에게 복음증거하기 위해 주신 은사였다(행 2:1-4).³⁰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신약의 모든 신자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무론하고 주시는 새 시대의 축복이었다(행 2:17-18)³¹라고 기록한다.

27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행 11:19).

28 Michael Green,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91), 173.

29 Kane, 51: “The unfailing secret of the Christian witness is the Holy Spirit.”

30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1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

성령께서 교회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성도들이 성령의 도구로서 복음 선교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였다(2:1-4; 8:26; 9:4,5; 10:3). 안디옥교회가 그 당시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된 것도 성령의 역사였다(행 13: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와 구브로로 나아갔다(행 13:4).³² 그리고 사도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바꾸게 된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행 16:6-7):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냐로 선교의 행선지를 바꾸어 가게 되었다(행 16:9-10):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울러 바울은 고린도서신에서 선교사역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만 가능함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그의 성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였다(고전 2:1-5).³³

롤랜드 알렌(Rolland Allen, 1869-1947)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선교 역사를 논하면서 오늘의 현대교회와 비교해서 성령에 대한 탁월한 인식을 가지고 사역함으로 놀라운 선교적 사역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³⁴ Lesslie Newbigin은 그 책의 개정판(1993년) 서문에서 사도행전에 나

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32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행 13:4).

33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 2:1-5).

타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에서 어느 곳에서나 성령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제의 삶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에 대한 월등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한 점을 강조하였다.³⁵ 알렌은 초대교회의 선교전략으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선교를 시행함으로 성공하였듯이 오늘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방법으로 사역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사도바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전폭적으로 의존하며 사역을 수행하였으며, 교회의 선교는 성령의 사역임을 전적으로 믿었으며, 그것이 그 당시 사도들의 사역철학이었다고 주장한다.³⁶

남미에서 선교사역하는 니우자 이티오카(Neuza Itioka) 박사는 오늘날 선교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성령 충만한 선교사들이며, 특히 성령의 인격과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선교지의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³⁷ 아울러 현대선교의 선교지에서의 사역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성령에 대한 바른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특히 오늘의 서구 신학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서구 출신의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자주 실패한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현재 기독교 선교의 주요 실패원인 중에는 성경적 세계관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성경적 세계관이 사탄의 세력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에 인도하는 참된 성경적 세계관을 갖지 않음으로 실패하였던 것이다.”³⁸

³⁴ Rol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93).

³⁵ Allen, *Missionary Methods*, ii: “He joined us in a deep concern for the place and pre-eminence of the Holy Spirit in all the work of the Church everywhere, and in the practical activities that this conviction involved.”

³⁶ Allen, *Missionary Methods*, ii: “St. Paul”fs faith in Christ and of the Holy Spirit would have forced him to act as he did, under any circumstances.... The very heart and life of his message was that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the work of the Spirit... This is the way of Christ and His Apostles.”

³⁷ Neuza Itioka, “Recovering the Biblical Worldview for Effective Mission,” *Mission in the Nineteen Nineties*. (eds.) Gerald H. Anderson, James M. Phillips, and Robert T. Coote (Grand Rapids: Eerdmans, 1991), 34-38.

이티오카에 의하면, 이렇게 서구 교회가 선교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으로, 그동안 서구교회가 오로지 지적인 면에만 치중함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초자연적인 표현들에 대해 실제로 가르치지 못한 결과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러면서 현대 교회의 선교의 문제점으로 성경적 세계관들과는 다르게 합리주의, 과학주의,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지함을 들었다.³⁹ 그는 현대 선교신학의 문제로서 성령의 인격과 그 역사에 대해 깊이 있게 관심을 갖지 않음으로 오늘의 선교현장에서 사역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힌다. 그에 의하면 유럽의 교회가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에 대해 신학적 논쟁에 치중하면서, 한편으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상대적으로 버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불행하게도 우리 서구 신학과 선교학은 성령의 인격에 대해 심각하게 다루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종교개혁시대부터이다. 로마 가톨릭의 미신적인 요소들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모든 신비적인 요소들을 강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에 대해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교회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교회의 현장에서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성령의 인격과 역사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되었는데, 곧 성령의 은사들과 역사는 초대교회에만 국한된 것이며 오늘의 현대교회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었다.⁴⁰

³⁸ Itioka, 35: "A major failing of much of the church in the past and today is the loss of a biblical perspective of reality."

³⁹ Itioka, 35: "In a gradual and subtle way, the western church has identified itself with a rationalistic, scientific, materialistic worldview that leaves little room for the supernatural. Even when humanistic anthropologists and sociologists began to investigate supernatural manifestations, Christians failed to take note. How ironic it is that it is Christians who ignore or at best only pat lip service to supernatural reality in the world today."

⁴⁰ Itioka, 36: "Unfortunately our western theology and missiology have not taken seriously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Part of the problem began with the Reformation. In reaction to the mystical elements of Roman Catholicism, all mystical approaches to faith were discouraged. Supernatural manifestations of God and his power were no longer expected... To the extent that the church presented the Bible in a way that emphasized the letter and ignored the Spirit, a living Christ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타문화권 선교사역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현대교회는 합리주의와 지식주의를 넘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⁴¹ 성경적 세계관 곧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이룰 수 있다고 제시한다.⁴²

3.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강림(행2장)과 선교사역

3.1. 구속사에서 성령강림의 의의

사도행전은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역이 그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⁴³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선포하였다(행 2:17-18):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

who intervenes today in human affairs was put aside. Fear of fanaticism became a constraining factor, as did distorted views of the person and work of the Spirit. As a result, it was easy to deny a contemporary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 and to relegate his gifts and ministries to apostolic times.”

⁴¹ Itioka, 36: “If Christian missionaries are to be effective in these cultures, their ministry must be contextualized. Conventional prayer will do little to conquer these peoples, tribes, and nations for Christ. Our preaching and teaching cannot include only the rational and intellectual. It must go beyond, to deal with spiritual powers.”

⁴² Itioka, 38: “We must acknowledge in a new way the realities of the spirit world presented in the Bible, and we must have the ability to discern this spiritual reality when it is present. Only then, as we employ spiritual weapons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will the church do the job it was called to do: deliver people from the power of darkness and transfer them to the kingdom of his beloved Son (Col. 1:13).”

⁴³ 최홍석, 『성령행전』 (서울: 솔로몬, 2000).

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행 2:17-18). Rolland Allen은 오늘 현대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법대로 선교전략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초대교회의 선교방법은 오직 성령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⁴

초대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인해 온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힘 있게 선교하는 교회가 된 점이다(행 2:42, 47):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와 복음 증거를 통해 선교하는 교회는 사도들이 힘 있게 움직이는 교회, 일하는 교회, 봉사와 수고하여 선교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다.

개혁파 선교학자 해리 보어(Harry Boer)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로 선교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선교는 대 사명을 받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서 내적 효력이 나타남으로 시작되었다.”⁴⁵ 바빙크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께서 계속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기적 중에 초대 교회 안에 거하심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⁴⁶ 롤랜드 알렌(Rolland Allen)은 그의 책에서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갈망하고 노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심을 주장한다.⁴⁷ 초대교회의 선교 열정은 인간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것이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선교사역이 열리게 만들었다.

행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강림의 결과 중 하나로 각 방언으로 교통하는 기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증거를 위해서 부어주신 것이었다

⁴⁴ Allen, *Missionary Methods*, 6: “St. Paul distrusted elaborate systems of religious ceremonial, and grasped fundamental principles with an unhesitating faith in the power of the Holy Ghost to apply them to his hearers and to work out their appropriate external expressions in them.”

⁴⁵ Boer, *Pentecost and Missions*, 128.

⁴⁶ Bavinck, 40.

⁴⁷ Rolland Allen, *The Spontaneous Expansion of the Church*, 9.

(행 2:4).⁴⁸ 예수님의 성육신이 구속사에 유일한 사건이듯이 성령의 강림은 또한 구속사에 유일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특별한 역사였다.

에드먼드 클라우니(Edmund Clowney)는 이러한 성령의 강림은 구속사에서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⁴⁹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 성령이 함께하는 생활이 임한 것이라고 증거하였다(골 2:28-29; 행 2:17-18):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선지자 요엘은 성령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상징이고, 성령은 성도를 재창조하고 새롭게 하고 더욱 경건하게 주의 날을 바라보도록 격려하시는 분으로 증거한다(골 2:28, 32).⁵⁰

구약학자 W. 벤게메렌(Willem VanGemen)은 이러한 요엘서의 “모든 육체”(골 2:28)를 성령강림의 예언의 특징인 “성령의 민주화”(The Democratization of the Spirit)로 설명하면서,⁵¹ 구약시대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곧 모세와 칠십인 장로들(민 11:25), 여호수아(신 34:9), 왕들(삼하 23:2; 시 51:11), 그리고 선지자들(왕하 2:9; 벰후 1:21)과 같은 지도권에게 임하던 성령이, 이제는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에서 신약시대 “주의 이름을 부르는”(골 2:32) 모든 성도들에게 곧 어린 아이나 청년, 모든 장년들을 포함하는 모든 연령대가 성령의 임재를 누리며, 더 나아가 인종적 구분을 뛰어넘어 성령의 보편적이고 확장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됨을 강조하였다.⁵²

⁴⁸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

⁴⁹ Clowney, 69: “It was the beginning of a new epoch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⁵⁰ Willem A. VanGemen,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Grand Rapids: Zondervans, 1991), 124: “The token of the restoration of God’s kingdom is the Spirit; he recreates, renews, and motivates the godly as they yearn for the day of restoration.”

⁵¹ VanGemen, 124-27.

⁵² VanGemen, 127: “The extension of the work of the Sprit increase in number regardless of

이것과 관련되어 구약학자 팔머 로벗슨(Palmer Robertson)도 그의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에서⁵³ 구속사에서 새 언약의 특징으로 “율법의 내재화”(The Internalization of the Law of God, 램 31:33-34)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 모든 새 언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됨을 누릴 것을 설명하였다:

성경은 새 계약 하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배되는 새 모습을 강조한다. 옛 계약에서 율법은 돌판을 통해 나왔다. 그러나 이제 이 계약은 새로운 양상으로 이루어진다(램 31:33-34). 새 계약에서 하나님의 법의 특징은 내부적인 성격에 있다. 율법은 표면적으로 지배하기보다 마음속 안에서부터 지배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자연적으로 그의 뜻을 따를 것이다. 명백히 돌판에 있는 모세 율법의 글은 이 새 계약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⁵⁴

오순절 성령강림은 구속사에서 새 시대의 축복으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만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다(롬 8:9).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은 영광스런 그리스도의 보좌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이요, 구속사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으로 주신 것이다(골 2:28-29).⁵⁵

Edmund Clowney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맛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줌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대적하고 고난을 견디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⁵⁶ 아울러 성령은 우리

sex, social standing, age, and ethnic origin.”

⁵³ O. Palmer Robertson,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290.

⁵⁴ Robertson, 190.

⁵⁵ Clowney, 69.

⁵⁶ Clowney, 66: “The Spirit is with us because we are in the last days(Acts 2:17; 3:24; 1 Pet. 1:10-12). Christ has conquered Satan; he sends the Spirit from his throne to finish on earth what he has completed in heaven. Along with taste of heaven, the Spirit brings the power of Christ’s resurrection so that we can resist the devil, endure suffering, and wait for the coming of the Lord.”

에게 이 세상 밖에는 궁극적으로 악한 제국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며, 역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으며, 성령은 그 과정을 지배하여 그 결과를 내도록 한다고 성경은 증거한다(빌 1:6; 요 10:28-29).⁵⁷

이처럼 세상 속에서 새 언약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적인 실체를 성령을 통해서 인식하여 무목적의 세상에서 삶의 의의와 목적을 찾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에 대해 사라져 가는 기억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분이 오신 현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다.⁵⁸

3.2.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선교사역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본격적인 선교사역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행1:8의 승천하시기 전에 주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성령의 강림은 초대교회 선교사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표적인 선교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먼저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성령의 주재권을 보여준다(행 13:1-3). 선교지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함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였다(행 13:1-3):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려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교회는 피선교지 교회로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였다(행 13:1-4). 성경에서 그 교회의 규모나 교인 수에 대

⁵⁷ Clowney, 68: “There is abroad in the world a greater power than that of the ultimate evil empire. History does move toward God’s consummation, and his Spirit controls the outcome.”

⁵⁸ Clowney, 50: “The church does not live with a fading memory of the presence of the Lord, but with the reality of his coming in the Spirit.”

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선교하는 교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령께서 무엇보다 세계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선교사 일행을 아시아보다 먼저 유럽으로 선교의 방향을 주도하심을 기록한다(행16:6-9):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3.3. 사도행전의 선교사역에 나타난 성령의 주요 사역

예수께서 오순절에 임할 성령에 대해 소개하실 때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로 설명하시면서, 삼위 하나님으로 성령을 말씀하셨다(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새 언약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축복으로서 그 사역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첫째로 성령의 중생의 역사이다(요 3:3, 5). 성령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사역인 중생, 곧 거듭남의 신비한 역사를 일으킨다.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으로 거듭남으로 믿음을 갖게 되며(요 1:12-13), 중생을 통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요 17:3). John Calvin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중생의 역사를 “전 인격의 혁명”(The renovation of the whole nature)으로 표현하고, Arthur Pink는 중생이야말로 창조주이신 성령님의 새로운 창조임을 강조하였다.

둘째로,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적용시키고 믿게 한다(고전 2:12; 행 5:3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구속사에서 새 언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율

법의 내재화(The Internalization of the God's Law, 램31:33-34; 롬8:3-4)이다.⁵⁹ 성령께서 우리 신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신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기록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구약시대에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용이 되는 생활을 허락하신 것이다.

셋째로, 성령은 선교사역을 수행하는 일어나는 많은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였으며(행 13:52),⁶⁰ 아울러 성령은 선교사역자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사역을 가능케 하였다(행 13:9-10).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바보에서(행 13:6)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적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에수에게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하고, 총독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였다(행 13:12). 바빙크(J. H. Bavinck)는 성령이 없었더라면 초대교회는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겁먹은 빈약한 무리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세계로 뻗어나갔으며 그들의 힘이 증가하게 되고,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⁶¹

넷째로, 초대교회 선교 현장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서 위험한 지경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역자들을 위로하고 보호하였다(행18: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초대교회 선교역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역자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엡 5:18; 행 1:8).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사역 중에 고통과 핍박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오늘도 영적으로 ‘사면초가’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밀려오는 세속주의

⁵⁹ VanGemeren, 243.

⁶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⁶¹ Bavinck, 40.

의 범람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이 시대 속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주고 있다.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간증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훼방하거늘”(Paul was constrained by the Spirit, and testified to the Jews Jesus is the Christ. They opposed him and blasphemed).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위로하셨다.

엘리아가 주위에 어려움이 몰려올 때에, 그를 위해 참 선지자 7,000명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처럼(왕상 19장),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바울은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cf. 롬 11:3-4).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여러 명의 돕는 사람들을 인하여 위로하셨는데, 그들 가운데, 행 18장 2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함께 텐트메이커로서 바울을 도왔으며, 그 외에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행 18:7)과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는” 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들로(행 18:8) 인해 바울은 큰 위로가 되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선교사역에서 성령의 역사는 선교사들을 사역의 현장에서 격려하고 위로하심으로 핍박과 순교의 위협에서 지속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하였다.

4.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선교사역의 특징들

사도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선교사로 사역하였다. 이들의 생애 속에 가장 큰 전환점은 교회역사 속에 복음 선교의 분수령인 오순절 성령강림이었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켰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정한 사도로 만들었다.⁶² 특히 사도들은 그리스도

의 내적 임재를 체험하였으며, 이것이 그들에게 항거할 수 없는 역동적인 힘으로 인하여 폭발적인 선교사역으로 나타났다. 사도들은 성령의 확신 가운데 그들의 사역 속에 역동성을 갖게 되었으며, 성령이 충만하여 효과적이고 온전한 봉사를 감당하였다. 성령의 임재가 그들의 선교적 열정을 맹렬하게 추진하게 만들었다.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보다 확신 있는 선교사역자로 변화하게 된 것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건이었다.⁶³ 그래서 그들은 복음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행 2:38; 13:38-39)과 초자연적인 부활의 역사(행 4:2; 10:40; 17:31; 24:15,21; 25:19; 26:8,23), 그리고 성령의 내적 임재를 통하여 살아 있는 선교사역을 수행하여 초대교회의 놀라운 선교사역과 교회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내재하심이(엡 3:17)⁶⁴ 그들의 모든 경험에서 가장 역동적인 사실이었다(엡 1:19-20)⁶⁵: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 편에 앉히사.”

이러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체험은 제자들의 사역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먼저 그들은 성경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오순절 이전에 성경의 약속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지만(눅 24:25-27),⁶⁶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새 언약의 축복으로서 만민에

⁶² George Peters,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 (서울: 크리스찬출판사, 2004).

⁶³ Kane, 58: “To know Christ and the power of His resurrection was their highest ambition (Phil. 3:10).”

⁶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⁶⁵ Kane, 59: “That Jesus Christ was alive and lived in their hearts (Eph. 3:17) was the most dynamic fact in their entire experience (Eph. 1:19-20).”

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로 인하여(을 2:28-32; 행 2:18),⁶⁷ 구약의 성경말씀들을 효과적으로 분별하며 사역에 적용하였으며(행 2:25),⁶⁸ 구약성경을 가지고 담대히 유대인들과 청중들을 향하여 선포하였다.

또한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후퇴함이 없이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모든 문제들, 곧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하여(행 8:14-25), 행 15장에서 총회를 소집하여 은혜와 율법에 대한 규정을 수립하였다.

성령의 임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의 사람으로 역동적인 사역자로 변모시켜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을 축출하고(행 16:18), 표적과 기사들이 따르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였다(행 3:1-10; 행 15:12).⁶⁹ 더 이상 유대인 지도자들이나 회당관계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더 옳다고 여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행 4:19-20; 4:29; 5:29).

사도들은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말로써 분명하게 증거하였다(행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들은 위험과 협박에 직면하였지만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고 증거하였다. 곧 복음의 진리는 우선 언어를 통해 표현이 되어야 했다(롬 10:14, 17). 또한 말과 함께 힘 있는 이적과 표적을 함께 행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설교와 기적들로(행 4:16)⁷⁰ 인해, 청중들은 “다 놀라 기이히 여기게” 되었다 (행 2:7; cf. 3:10).⁷¹

66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밋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67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68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69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70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5. 결 론

세속화시대에 기독교 영성을 회복하는 일은 오늘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이다. 지난 20세기에 나타난 선교신학 분야에서 이러한 세속화현상은 어떤 분야보다도 치열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에큐메니칼 계통의 세속화 선교신학의 흐름은 전통적인 선교사역을 위축시키고 유럽 교회들로 하여금 선교적 열정이 식어지게 하였으며, 오히려 유럽이 오늘의 현대교회의 선교지가 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초대교회의 선교적 영성을 연구함은 매우 유익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도행전의 선교적 활발한 사역은 현대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되기 때문이다. 룰랜드 알렌도 우리의 선교방법보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방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사실 초대교회의 활발한 선교사역의 근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령의 오심은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축복이자,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행 2:17-18; 욥 2:28-29)로 이전 시대보다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누리는 역사가 전개되면서, 초대교회 선교역사가 힘 있게 일어나게 만들었다. 오늘의 세속화시대에서 효과적인 선교적 영성을 위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선교사역을 수행하여야 하리라. 선교사역에 대한 바울의 기도제목처럼 교회와 선교사역 위에 성령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다(고전 2:4-5).⁷²

오늘날도 초대교회의 선교적 영성을 따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선교사역을 수행하며,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충만한 은택을 통하여 초

⁷¹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행 2:7).

⁷²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대교회 선교역사처럼 이 시대의 세속주의의 어두움을 극복하기를 기도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행 2:17-18):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참고문헌

- Allen, Rol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93.
- Boer, Harry. *Pentecost and Missions*. Grand Rapids: Eerdmans, 1961.
- Chung, Hyun-Kyung. "Come Holy Spirit, Renew the Whole Creation,"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Review*. Vol. CXL, No. 6 (1991).
- Clowney, Edmund P. "A Critique of the 'Political Gospel.'" *Christianity Today* 11 (28th April, 1967).
- Cook, Harold R.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Missions*. Chicago: Moody, 1954.
- Green, Michael. *Evangelism in the Early Church*. Grand Rapids: Eerdmans, 1991.
- Hoekstra, Harvey T.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and the Demise of Evangelism*. Wheaton: Tyndale, 1979.
- Hockendijk, J. C. "The Call to Evangelism." *The Conciliar Evangelical Debate: The Crucial Documents 1964-1976*. Edited by Donald McGavran.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1977.
- Hocking, William E. *Re-Thinking Missions: A Laymen's Inquiry after One Hundred Years*. New York: Harper & Brothers, 1932.
- Hoekendijk, J. C. *The Church Inside Ou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6.
- Johnston, Arthur.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Wheaton: Tyndale, 1978.
- Johnston, Patrick.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Pasadena: William Carey Library, 2000.
- Kane, J. Herbert *Christian Missions in Bib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1976.

- Neill, Steven. "The Nature of Salvation." *The Churchman* 89/3 (1975).
- Potter, Philip. "Christ's Mission and Ours in Today's World." In *Bangkok Assembly*, 1973.
- Robertson, O. Palmer. *The Christ of the Covenant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0.
- VanGemenen, Willem A. *Interpreting the Prophetic Word*, Grand Rapids: Zondervans, 1991.
- WCC. *Drafts for Sections: Uppsala '68*. Geneva: International Review of Missions, 1968.
- WCC. *The World Missions of the Chu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Tambaram, Madras, India, December 12th to 29th, 1938.
- Bavinck, J. H. 『선교학 개론』. (전호진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4.
- Hedlund, Roger E. 『성경적 선교신학』. (송용조 역). 서울: 서울성경학교출판부, 1990.
- Larkin, William J. Jr. and Joel F. Williams. (Eds.) 『성경의 선교신학』. 김성욱, 홍용표 공역. 서울: 이레서원, 1998.
- Neill, Stephen. 『기독교선교사』.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6.
- Peters, George. 『선교성경신학』. 김성욱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4.
- 김의환 편저.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동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서울: 성광문화사, 1987.
- 박형용. 『사도행전: 교회확장의 원리』. 서울: 성광문화사, 1983.
- 임영효. 『사도행전에서의 선교와 교회성장』. 부산: 고신대학교출판부, 1997.

Abstract

A Missiological Study of The Holy Spirit and Missions in Acts 1 and 2

Kim, Sung-Uk

In the age of secularization, missiology department also has been influenced and struggled through secularized mission theorists. Because missiology is concerned on the modern social trends and cultural changes in various ways. Arthur Johnston called it as “The Battle for World Evangelism.” Since 19th century radical theological issues have attacked biblical concept of mission and have distorted its meaning of mission. They deserted a traditional concept of mission and brought a kind of social evangelism such as “larger evangelism.”

In the secularized age, a task of modern Korean church is to recover the biblical Christian spirituality. It is necessary to study a missionary spirituality of the early church in Acts, because the mission of the early church is a kind of model for the modern church’s missions. Rolland Allen assisted our modern church should return to St. Paul’s missionary methods in early church.

In fact,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n Acts is a basis of understanding on the successful missionary works of early church in Acts.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s a blessing to the New Testament Christians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Acts 2:17-18; Joel 2:28-29), and after that all believers are fully benefited in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In Acts 1:8 Jesus told that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makes

the early church a missionary church.

In a secularized age modern church should return the early church's missionary method for the effective missionary works. Therefore, we pray that modern missionary can overcome the secularized approach of mission through recovering the missionary spirituality of the early church (Acts 2:17-18).

Key-Words: Acts, The Early Church, Missionary Spirituality, Coming of the Holy Spirit on the Pentecost, Apostles' Missionary Activities